

나도 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은 고센 땅에서 십칠 년을 더 살았다. 유목민을 혐오하는 나라에 붙어 살면서도 목축을 할 수 있었고 자식들은 왕가의 가축을 길렀다. 넉넉한 삶이었다. 야곱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늙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 창세기 47:30**

야곱은 요셉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남긴다. 조상의 묘지는 막벨라 굴을 뜻한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헷 사람들에게서 구입한 곳이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다. 부탁을 남긴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에게 다급한 소식이 도착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았지만 야곱은 이미 앞을 보지 못했다. 이 날 요셉은 야곱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 창세기 48:5**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말했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입양한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손자가 아닌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야곱의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어린 손자들로서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상속 받을 재산의 양으로 따지면 식량이 없어서 이집트까지 이민 온 할아버지 보다는 현직 총리인 아버지 요셉이 물려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곱이 물려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종류의 유산이 아니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이 요셉과 동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손자들임을 알고는 가까이 불러 축복한다.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 창세기 48:13**

야곱과 요셉이 마주 보고 있다. 요셉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붙잡아 이스라엘 앞에 세운다.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붙잡아 이스라엘 앞에 세운다. 마주 보고 있는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가, 왼손 앞에 에브라임이 서 있다.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으니 요셉은 형제를 순서에 맞게 세웠다. 아버지는 그저 손을 들어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이 팔을 교차했다.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혀졌다. 지금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주려하는 것이다. 놀란 요셉이 야곱을 말린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 창세기 48:17-18

마음이 급해진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 움기려 한다. 늙은데다가 앞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착각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착각도, 실수도 아니었다. 야곱의 대답은 단호하다.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이 축복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 축복함으로써 야곱이 물려주는 장자의 명분이 에브라임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의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을 아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면 쉽게 이해된다. 원래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맏이는 르우벤이었다. 그 다음은 시므온, 다음은 레위, 다음은 유다의 순서다. 그러나 르우벤은 야곱의 첩과 동침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유다는 요셉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큰 일을 맡았지만 이방여인과 혼인하고 아들 둘이 죽었으며 며느리를 창기로 알고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기 까지 했으니 장자의 명분을 받기에는 부적합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모두 야곱의 첫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다. 레아의 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을 받을 아들이 없다면 다음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받을 차례다. 여종이 낳은 아들은 먼저 태어났어도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요셉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 사건으로 이후에 구성되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게 된다. 요셉 지파는 없다. 대신 장자의 명분대로 두 몫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게 된다.

장자의 명분을 요셉의 가문으로 흘러가는 것 이외에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것도 큰 사건이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은 마치 평생 가슴에 품어온 응어리를 풀어내기라도 하듯이 ‘나도 안다’고 말하면서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 이 날 야곱의 모습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던 날, 그 날의 이삭과 같았다. 그 날 이삭처럼 야곱도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 날 둘째 야곱이 형을 제치고 축복을 받았듯이 둘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축복을 받던 날 야곱은 두려워 떨었지만 에브라임은 두렵지도, 또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에브라임을 축복한 사건은 야곱이 축복이 받던 날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인다. 야곱도 둘째 아들, 에브라임도 둘째 아들이다. 이삭이 앞을 보지 못했듯이 야곱도 앞을 보지 못한다. 야곱이 형을 제치고 축복을 받았듯이 에브라임도 형 므낫세를 제치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 받을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에브라임은 어떠한 속임도, 두려움도, 노력도 없이 축복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축복은 이후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에브라임 지파는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자체를 에브라임으로 부르기도 했다.